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혜산청년광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혜산청년광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혜산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활성화를 위한 준비사업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격류속에 과감히 뛰어들어 광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사업을 즐기치게 진행
하고있는데 대해 치하시면서 그들의 투쟁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광산의 로동계급은 광산창설후 40여년
간 불타는 애국의 일념을 안고 질 좋은 정광을
제련소들에 제때에 보내줌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혜산청년광산은 유색
금속생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광산을 전망성있게 발전
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력적인 과업

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광산앞에 나서는
당면한 과업은 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
이기 위한 기술개건사업을 짧은 기간에 끝
내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고품질광석이 많이 매장되어있는 혜산
청년광산은 유리한 채굴조건을 가지고있
는것만큼 모든 생산공정들의 현대화, 과학
화를 실현하면 급속한 생산장성을 이룩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에 총력량을
집중하여 광산을 굴지의 유색금속생산기
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생산을 활성화하고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이기 위해서는 채굴장정비를 비롯한 많
은 일감들을 처리해야 하는것만큼 선후차
를 바로 정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광물생산의 비약적장성을 위한 준비사
업을 짧은 기일안에 끝내는것은 방대하고
아름찬 과업이지만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리고있
는 광부들의 비상한 투쟁열의가 있는 한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광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굴진을 적극 앞세우고 모든 채
굴 및 운반, 선광설비들의 현대화를 실현
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정비보수를 정상
화하여 그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
하시였다.

혜산청년광산이 현대적인 채취설비들
로 장비되는 조건에서 설비관리, 기술관
리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사
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생산잠재력을 충
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
였다.

유색금속은 나라의 부강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자원인것만큼 한덩어리의
광석이라도 허실없이 모조리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위해서는 탐사를
앞세워 예비광량을 충분히 마련하는것과
함께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심층채굴대
책도 면밀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하
시였다.

지하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사업과 생

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
면서 광산의 일군들은 후방사업은 곧 정
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를 언제나 명심하고 광부들에게 보다 훌
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지
적하시였다.

생산을 하루빨리 활성화하고 광물생산
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해서는 지도일
군들이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대
담하고 통이 크게 배짱있게 내밀며 대중
의 앞장에 서서 대고조진군의 나팔소리
를 더욱 높이 울리어야 한다고 말씀하
시였다.

현대화의 모범광산인 3월5일청년광산처럼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공정의 현대
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과 함께 광산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러 로동계급
의 선진문화가 활짝 꽃피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거세차게 타오르는
대고조의 불길속에 금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

는 대혁신, 대비약이 이룩되어 우리 주체
공업의 위력이 날을 따라 몰라보게 장성
강화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눈부신 기적
은 강성대국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탄생
100돐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
제끼기 위한 총공격전으로 지금 온 나라
는 활화산의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세기적변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는 이 격동적인 시대야말로 어
머니조국의 룡성변명을 위해 한몸을 깡그리
불태울 때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혜산청년광산의 광
부들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속에 도도히
전진하는 대오의 전렬에서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척후병, 개척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감으로써 강성대국
건설대전에서 영웅적기개와 필승의 기상
을 떨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
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대고조의 선봉에서 기운차게 내달리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대고조의 선봉에서 기운차게 내달리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열간압연직장을 비롯하여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와 기술개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생산하고 또 생산하며 증산하고 또 증산하여 더 많은 철강재로 나라의 중공업과 경공업을 믿음직하게 떠받들고있을뿐아니라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진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기업소 노동자들의 로력투쟁을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열간압연직장에 새로 꾸려진 CNC화된 고온공기연소가열로를 보시고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나라의 맡아들답게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철강재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을 일떠세우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고온공기연소가열로가 일떠선 결과 증유를 전혀 쓰지 않고 자체의 용광로에서 나오는 가스를 연료로 마음먹은대로 강편을 생산해낼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공정에서 놀라운 기술적진보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책에서 지난해에는 우리 식 용광로에 의한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더니 올해에는 남의 나라에 의존하던 중유강편생산체계에 중지부를 찍고 우리의 연료에 의거하는 새로운 강편생산체계를 확립하였다고 하시면서 경제강국건설의 전초병, 개척자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철강재생산을 부단히 높이면서도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련관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원료를 주체화,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김책이 불과 한해동안에 적자만 기록하던 기업소로부터 흑자를 내는 기업소로 전

변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생산이자 과학기술이고 과학기술이자 강성대국이라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기업소의 일생산 및 재정총화정형을 료해하시고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차례지게 하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여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행정경제사업의 정치화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기업소 녀성과의 지원대의 발기자이며 대장인 한옥련을 만나시고 김책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기 세차게 타오르고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되던 날에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사상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평범하던 김책의 녀성들이 온 나라가 사랑하는 영웅적위훈의 주인공들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는 자랑스러운 녀성지원자들의 공로를 다시금 높이 평가하

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력으로 만난을 헤쳐감으로써 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구호인 자력갱생이 야말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는 열쇠이며 우리 민족을 영원히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필승의 보검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는 지금 김책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

들은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다지고다져온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대고조의 선봉에서 계속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격동의 시대를 맞이한 전체 인민은 지금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일찌기 없었던 세기적기적을 창조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거세찬 비약의 폭풍은 찬란한 미래에로 신심뜨들이 나아가는 조선의 혼연일체가 얼마나 위력하며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다지고다져온 자립경제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서운 힘으로 분출하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축성과 사회주의건설에 거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충실성의 전통을 창조한 김책의 영웅적로동계급이 당이 준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새로 건설된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함경북도에서 새로 건설한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사랑작업반, 파자작업반, 빵작업반, 술작업반 등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은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아니라 최신시설비들로 장비된 현대적인 식료가공기지라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식료가공설비들이 준비하게 늘어선 아담하고 정결한 작업장에서 쉬임없이 쏟아지는 갖가지 식료가공품들을 보시고 질 좋은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해 기뻐하시면서 도내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는 공장로동계급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은 자기 지방에서 나오는 원료에 의거한 생산체계가 확립되고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로 장비되었으며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실리있는 현대적인 식료품생산기지라고 말씀하시였다.

삼일포토산물공장의 모범을 따라 오늘

모든 도들에 현대적인 종합식료공장들이 일떠서 크게 은을 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이 악하게 투쟁하면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이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한데 어울려 부르는 랑만에 넘친 노래를 들어주시고 우리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로동은 곧 노래이고 기쁨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자라난 우리 로동자들의 품만한 정서이라고 말씀하

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제12차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로동자부류)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노래속에 흥겨운 로동생활의 나날을 위훈으로 빛내여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로동계급들처럼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신념의 강자들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도내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수 있으며 강성국가의 대문이 열려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질 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상점매대들을 풍성하게 함으로써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공장의 종업원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거세찬 시대의 숨결에 발을 맞추어 생산에서 보다 큰 비약을 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에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에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날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공연을 보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을 지닌 관람자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관람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녀원대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

시고 그 실현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태양절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장관 조선로동당과 군대의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의 일군들이 공연을 함께 보

았다.

예술선전대원들은 혼성4중창과 합창 《행복의 노래》, 시랑송 《수령님과 4월 15일》, 녀성독창 《잊지 못할 우리 수령님》, 플류트와 녀성중창 《당은 장군님의 품》, 기타병창과 녀성독창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촌극 《인상문제》, 바스기타독주 《통일렬차 달린다》, 시이야기 《우리의 생명선》, 합창 《남산의 푸른 소나무》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군부대에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인들의 무한한 정신력을 그대로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훌륭한 작품들을 가지고 공연을 참신하고 전투적으로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공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원대한 포부를 안고 불멸의 대강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열의는 비상이 높다고 하시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어버이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명령을 쫓아내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려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함으로써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스승

저는 4월을 맞을 때면 모란봉극장을 찾곤 합니다.

사연깊은 극장앞에 서면 남조선로동자대표로 역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여 대표들과 함께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통일정부를 세울 것을 결의하던 그날의 메아리가 들려오는듯 합니다.

절세의 위인을 모신어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해 온 민족이 단결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파시한 련석회의의 숭고한 뜻은 세기의 언덕을 넘어 온 겨레를 통일애로 부르르고있습니다.

1

역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북과 남의 각이한 정치세력과 각계각층이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운명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논의한 민족적 회합이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주제37(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련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민족적 회합이었습니다.》

저는 주제37(1948)년 3월을 잊을수 없습니다.

그날 방송으로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중앙위원회 제26차회의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련석회의를 개최할것을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에 제의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 남남방은 세차게 끓어번졌습니다. 련석회의의 발기는 민족단합을 애국애족의 최고정수로 여기시고 사상과 리념이 다른 각계각층 동포를 하나로 묶어세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창민길에 세워주시려는 위대한 김일성주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애국의 결단이었습니다.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련석회의의 제의를 받아안은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은 저저마다 지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인사들은 앞을 다투어 《통일절대지지》, 《3천만의 축원》, 《한사조 성사시킴》 등의 단화와 글들을 련속 발표하였으며 각지에서 모임 열고 대표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아버지수령님의 애국의 호소에 남조선에서 40개의 정당, 사회단체가 호응해나섰습니다.

당시 영동포방직공장 로조분회장이었던 저도 영광스럽게도 로동자대표로 추천되어 단발머리치녀로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로동자인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행길에 오른 대표들속에는 농민과 지식인, 종교인, 상공인, 예술인들 이어 증가하고 우익계열의 민주주의인사들도 많았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북행을 단행한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우익과 중간민족주의자들은 련석회의에 대해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김구로 말하면 한때 《상해협시정부》의 요직에 있으면서 《반일》과 《독립운동》을 표방하였지만 철저한 《반공투사》였고 김규식은 해방후 미제가 조작한 남조선 《파도립법의원》의장을 하면서 사대주의와 반공에 물젖어있던 거두었습니다.

때문에 남조선의 좌익세력들까지도 그들과는 아예 상종할 념을 하지 않았고 북조선전진의 관계자들도 그들과의 합작에 대해서는 단념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께서 미제의 분렬책동과 《단선단정》 음모를 파란시킴으로써 반도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그러자면 미국에 추종하지 않는 우익민족주의세력과의 대담하게 합작을 해야 한다고 하시며 일군들의 편협한 견해를 바로잡아주시었습니다.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여하를 불문하고 단결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신 립장이었습니다.

그러하여 우익계열의 인사들에게도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초대장이 정중히 전달되어 되었습니다.

그때 초대장을 받은 김구는 자기가 과거에 공산주의자들을 쫓곤 혐오해온것만큼 그들을 자신을 배척할것이라는 위구심으로 좀처럼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생각끝에 비밀련락원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련락원을 통하여 과거를 백지화하기로 한다는 말씀을 전달하시였습니다.

아버지수령님의 이러한 폭넓은 아량과 크나큰 로고에 의해 남조선의 많은 우익인사들도 미국의 회유와 협박을 뿌리치고 용약 북행길에 올랐던것입니다.

주제37(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모란봉극장에서는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속에 근 700명이 이르는 북과 남, 해외의 56개 정당, 단체 대표들의 참가하여 역사적인 남북련석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련석회의에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참가하였는데 여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거있습니다.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합구상을 받들어가시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수령님께서 련석회의를 소집하시는것을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한결같이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특히 련석회의에 참가하는 남조선녀성단체대표들이 다 들어올수 있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온 남조선녀성대표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우리들의 옷차림이 각양각색인것을 아시고는 년령과 몸매에 맞는 조선옷을 잘 지어 입혀 회의에 참가하도록 해주셨

수호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선군사상과 건군업적을 이어받으시여 인민군대를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무찌를수 있는 강군중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총성을 들으시며 성장하시었고 가렬한 전쟁의 나날 최고사령부작전대결에서 주체의 군사전법을 체득하시며 령장의 품모를 지니신 탁월한 군사인의 영재이시디.

이이께서는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때신 때로부터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높이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선차적힘을 기울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반대말절전에서 언제나 무적강군의 위용을 펼쳐온 인민군대는 지난 세기 90년대에도 조국수호의 전초선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켰다.

총대우에 조국과 인민의 자주적 존엄과 사회주의승리가 있다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철령과 오성산, 초도를 비롯한 전선전리 선군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걸고걸으시며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기울이신 장군님의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승리의 력사만을 기록해왔다. 평범한 인민군병사가 공화국의 명공에 침입한 민족적승기를 단방에 격추한 무훈단이며 《하늘의 제왕》으로 자처하는 미군정찰기를 용감무쌍히 공격제압하여 혼비백산케 한 인민군비행사의 용맹에 대한 일화, 평화적위상을 《요격》해냈다고 칭찬하는 적대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단호한 정벌의 기상으로 짓무르게버린 군사사변들이 군기들에 빛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군사전략과

조국통일상 수상자 김태선

자신께서는 해방이 된지 몇해가 지난 그때까지도 낮은 천에 물감을 들인 옷을 지어 입으시며 한없이 검박하게 생활하시면서도 남조선에서 온 우리에게 새 조선치마저고리를 마련해주시길 권속어머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저는 난생처음 산뜻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아버지수령님을 모신 련석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북조선정치정세》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통해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광국적단독선거를 단호히 거부하여야 한다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파와 종교의 소속, 정치적견해를 가리지 말고 반드시 단결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였습니다.

민족대단합의 숭고한 지론을 펼치시며 자주적인 통일독립국가건설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엔 참가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습니다.

자기의 주의주장만 내세우던 각 당, 각 파의 인사들은 저마다 연단을 나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민족을 구원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면서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와 미제의 《단독선거》 음모를 파란시킴기 위한 격문 《진조선동포들에게 격항》인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회의에 참가하여 민족분열을 견결히 반대하고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려는 대표들의 결연한 의지와 열망을 목격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남북련석회의참가자들을 위한 연회가 마련되었는데 김규식은 흥분된 어조로 《남조선에서 온 대표여러분, 우리는 명명한 령도자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북조선에서 빛나는 진군건설과를 이룩하고있는 바로 그 길, 김일성장군님께서 밝히신 민족자주권을 따라 싸워나가야 합니다.》라고 열렬히 호소하여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만의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남조선에서 참가한 대표들모두가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게서 우리 민족은 제손으로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를 능히 일떠세울수 있다는 확신에 넘쳐 민족의 위대한 령도를 모신 김일성을 도로하셨습니다.

정녕 4월 남 북 련 석 회 의 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열과 위인적품모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로서 위인이 있어 단결도 있고 승리도 있다는것을 확증한 역사적인 회합이었습니다.

민족분렬의 위험이 질어가던 엄혹한 시기에 련석회의 련석회의를 마련하시고 우리 민족은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

여 능히 하나로 단결할수 있고 단결된 힘으로 자주통일을 달성할수 있다는 것을 내외에 파시하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2

아버지수령님은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나선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 아껴주시고 내세워주신 친어머님이시며 자애로운 스승이십니다.

은 겨레를 민족대단합의 길에 묶어 세우시려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저를 잊지 않으시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값없는 삶을 빛내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제37(1948)년 7월 어느날이었습니다. 련석회의후 남조선에서 청년학생들과 함께 통일적인 중앙정부수립을 위한 투쟁을 벌리던 저는 뜻밖에 뿔스카에서 진행된 국제로동청년대회에 참가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통일애국력량이 내의분렬주의 세력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긴장하게 투쟁하고있던 그때 제가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한다면 도저히 믿을수 없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여 비행기에 올라서아 저는 그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관계부문 일군들은 남조선의 엄혹한 정세를 고려하여 대회에 북에서 4명을 보내기로 하였고 선출된 대표들은 이미 수속까지 끝낸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신 수령님께서는 북에서 두명이면 남에서도 두명 가야 한다고, 우리는 남을 떠나 해도 언제나 조국통일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라도 대표선발을 다시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는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민족대단결의 견지에서 보고 하시며 항상 남조선동포들을 생각하시는 수령님의 통일애국의 뜻과 세심한 조치에 의해 북과 남의 로동청년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국제로동청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저는 아버지수령님을 또다시 뵈게이 비운은 영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대표들을 불러주시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청년대표들이 수고를 했다고, 정말 장하다고 하시며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저를 바라보시며 남조선청년대표로서 국제로동청년대회에 참가하고는 기분이 어떤가고 물으시였습니다.

통일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들의 투쟁에 굳은 편대성을 보내는 세계 진보적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선청년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통일담론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것이다》

서울에서 《민족21》 창간 10돐 기념행사 진행

북과 남, 해외가 함께 만드는 6.15시대의 통일애국잡지 《민족21》이 뜻깊은 창간 10년을 맞았다. 지난 4월 6일 서울 효창동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는 《민족21》 창간 10돐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박춘열 초대사장, 손재갑대본, 발행인인 명진스님, 정창현대표, 안영민편집장, 정용일 편집장, 정영일 편집장 등 《민족21》의 전 현직 관계자들과 리정희 민주로동당 대표, 류계정 범민련 남측본부 사장,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고문, 김리경 《우리겨레하 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권오현 《민간협랑시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잡지발행인 명진스님은 인사말에서 《누가 그랬다. (민족21)이 북한양잡지가 아니냐고. 그래서 말해주었다. 북을 비난하는것은 (조, 중, 동) 다 하나가 하나라도 좋은 말 해야 한다. 칭찬하고 소통하고 신뢰해야 하는것》이라며 《북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북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화해의길을 인식하고 함께 소통해야 하는데 그것을 (민족21)이 해왔다.》고 말하며 참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새로 결성된 《민족21》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래선동무는 남조선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도 다 정히 물으시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지주집 아이보개로 있다가 해방과 함께 서울 삼화전직공장에 취직한 일이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가 반동들의 마수에 걸려 1년간 감옥살이를 한 사연 등 살아온 경력을 친 아버지에게 아뢰이듯 무릅없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의 대답을 다 들어주신 수령님께서는 잠시 흐리신 안색으로 남쪽하늘가를 바라보시다가 오늘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고생하고있다고, 남조선청년들은 미제의 분렬책동과 남조선반동들의 반인민적인 책동을 거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남조선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하루속히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유구한 력사와 슬기로운 문화로 빛나는 우리 나라를 정대로 돌로 갈라져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지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저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에 한몸바칠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미더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참다운 인민의 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고 하시면서 김래선동무는 이번에 진행된 선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원으로 선출되었다고 알려주시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길가의 조약돌처럼 버림받던 이름 없는 노동청년 제가 나라의 정사를 논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다니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격동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는데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려고, 남조선로동자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였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로부터 1년후인 주제38(1949)년 10월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녀성대회때도 제가 남조선녀성대표로 참가하도록 크나큰 신임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들마다에 공화국대표속에서 우리 남조선대표들도 나란히 세워주시어 이항없는 믿음에서 저는 북과 남이 따로없이 온 겨레를 안아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품을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가렐치절 전의 나날에도 저를 잊지 않으시고 각별한 정을 부어주시였습니다. 주제39(1950)년 여름 전쟁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너맹된들과 함께 전선원호에 나갔다가 날이 저물어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한 일군으로부터 격정없는 받아안을 수 있는 뜻밖의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서울에서까지 나가시어 전선형편을 료해하시던 수령님께서는 제가 처녀의 몸으로 로

화를 헤치며 전선원호에 앞장서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저를 만나시려고 오백동안 기다리다가 떠나시면서 래선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감사를 보내주라고 하셨다는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을 쏟고야말았습니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수령님께서 한 평범한 녀성을 위해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바치시고도 감사까지 보내주시니 그 믿음, 그 사랑을 무엇으로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수령님의 그처럼 다스린 손길아래서 저는 그후 전선에서 소환되어 당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후에는 평양방직공장 직맹위원장으로, 그후 직총중앙위원회 일군으로 사업하며 보람찬 삶을 밟아내실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파업으로 내세우시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이든 한몸에 안아 키워주고 내세워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을 모시였기에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앞길에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같은 불멸의 통일헌장이 승리의 기치가 되어 휘날리고 각계각층 동포들이 수령님을 따라 통일애국의 대에 서슴없이 뛰어

오셨을것입니다.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볼수록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에 바치신 수령님의 거룩한 한평생이 어려와 저는 수령님의 불멸의 통일령도업적을 후대들에게 전해줄 마음으로 속심혁명사적지이며 당창건사적문 등을 자주 찾으며 체념담을 들리려곤 하였습니다.

선군장정의 길에서 이 사실을 보고 받으신 정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친히 감사까지 보내주시어 주제 91(2002)년에는 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어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은 이름없던 남조선의 한 로동자처녀를 조국통일의 역군으로 키워주시며 온갖 정을 기울이신 수령님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불멸의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계승하여 전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업무를 실현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이요 의지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50돐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내주시신 력사적사한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도 뜨겁게 맥박치고있으며 확고한 통일의지와 대응으로도 마련하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에도 력력히 어려였습니다.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민족대단결 사상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게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는 3천리강산에 더 힘있게 나부끼고 조국통일의 대문을 반드시 열리게 될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대

다림질하듯 퍼서 모든 민족이 바로 불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족21》잡지의 열성독자이기도 한 리정희 민주로동당 대표는 《(민족21)이 배대되어오면 잡지를 펼치는 순간 북에서 온 기사를 읽으며 우리가 정말 같은 민족이구나,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구수한 그리고 정겨운 우리 냄새가 났다.》고 감회를 퍼력하였다.

이날의 기념행사에서는 노래와 무술시범 등 다채로운 공연종목들이 펼쳐져 《민족21》 창간 10돐을 더욱 흥취나게 하였다.

본사기자



최대의 방사능위험지대는 남조선이다

지난 3월 일본의 동쪽앞바다에서 일어난 리히터척도 9.0의 지진은 엄청난 규모의 해일을 몰아오고 후쿠시마원자로까지 폭발시켜 일본을 한순간에 대재앙의 나라로 만들었다. 원자로의 연속폭발로 지금도 계속 추출되는 방사능이 바람과 바다물을 통해 전세계로 전파됨으로써 인류는 새로운 방사능공포에 떨고 있다.

일본의 이번 대재난을 보면서 원자료를 가지고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원자료들에 대한 안전점검과 폐쇄 등 해당하는 대책들을 취하고있다.

문제는 방사능에 대한 세인의 우려와 공포심을 리용하여 그것을 자기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리용하려는 세력이 있는것이다.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바로 그러하다.

얼마전 남조선의 통일부 차관은 어느 한 강연회에서 《일본 방사선투출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북의 핵시설이 더 위험》 하더니 뒤바뀌고 떠돌아다녔다. 이에 앞서 이전 외교교통상부 장관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화국의 핵시

설이 《이웃국가들에 심각한 안전상의 우려를 야기하고있다.》는 일로당도않은 꾀변을 늘어놓았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과 그 무슨 《전문가》들까지 내세워 《새로운 차원의 핵재앙》이니 뭐니 하며 《북조선핵시설 위험설》을 대대적으로 떠들어대고있다.

아닌바중에 흥두께라더니 핵재난은 일본에서 일어났는데 엉뚱하게 공화국의 《핵시설위험》에 대해 법적 고아네니 거기에 분명 불순한 기도가 깔려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것은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폭발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 크게 일고있는 방사능공포와 집권당국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다른데로 돌리며 더우기는 공화국의 《핵위협》을 더욱 부각시키고 주체적인 핵동력공업자재를 없애버리는 기도라고밖에 달리는 평할수 없다.

남조선의 대결분자들은 동족의 핵시설을 비난하기에 앞서 제 집

안의 현실적인 방사능위험부터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진짜로 방사능위험이 떠돌고있는 곳이 어디인가.

주지하는바와 같이 남조선에는 수십개의 원자로가 가동하고 있다. 그중 대다수의 원자로들이 부산과 울산을 비롯하여 바다를 낀 지역에 집중배치되어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변과 가깝고 세원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남조선에서 원자로들이 후쿠시마와 같은 자연재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정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조선반도에서도 지난 시기 리히터척도로 7.0~8.0에 해당하는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

그런데 남조선의 원자로들은 지진에 매우 취약하고 사고위험성이 높고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의 원자로설계로 건설된 일본의 원자로들은 대체로 리히터척도로 7.5의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에 남조선의 원자로

들은 리히터척도로 6.5의 내진설계를 갖추고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원자로가 불비하여 가동중 지금까지 64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것은 년평균 29건의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된다. 그중에는 사고단계가 1~2등급에 속하는 극히 위험한 사고도 13건이나 있었다.

남조선의 원자로들중에는 수명이 다 된 위험천만한 원자로도 있다.

울산에 있는 고리1호기는 1978년부터 가동을 개시해 수명(30년)을 다한 원자로로서 2008년부터 10년 연장가동중이었다. 설비의 수명이 다 된 원자로라는 며칠전 전원공급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임시 전원중단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후쿠시마원자로폭발에 불안감을 금치 못해 하면서 《원전1호기수명연장을 중단하라》, 《고리원전은 한반도의 화약고》, 《수명을 다한

원전은 폐쇄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있는것도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처럼 지진과 해일에 취약한 남조선의 원자로들중에서 단 한기의 원자로라도 뜻밖의 자연재해와 사고에 의해 폭발한다면 큰 지 않은 조선반도에서 얼마나 큰 방사능피해를 초래할것인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후쿠시마원자로는 지진해일로 폭발하였다면 남조선의 원자로들은 지진해일위험에다 전쟁위협에도 노출되어있다.

지금 남조선반도는 러지기 직전의 전쟁화약고를 방불케 하고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추구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몰아온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난해에 조선반도에서는 불을 즐기는 내외호전세력의 무모한 전쟁연습소동과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로 인해 진

짜 전쟁이 터질번 한 아슬아슬한 위기가 조성되였다. 다행히 60년전의 참국이 이 땅에 다시 펼쳐지지 않은것은 전적으로 공화국의 강력한 자위적억제력과 평화화를 위한 최대한의 자제력, 인내에 의한것이였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고 자중할 대신 호전세력은 올해에도 공화국의 대화제를 거둬 뿌리치고 전쟁연습과 심리전의 화약내를 길게 쫓으며 사태를 폭발직전으로 몰아가고있다. 얼마전에는 공화국의 핵시설 등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화장적제수단운용습》을 올해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만일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 파국적인 재난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지진에도 취약한 남조선의 원자로들이 전쟁의 불바다에서 어떤 참변을 겪게와 인류의 머리에 들끓는우게 되겠는가는 상상하기도 끔찍한것이다.

전쟁은 말그대로 조선반도와

아시아지역, 전세계의 참혹한 재난을 초래하는것으로 될것이다. 후쿠시마원자로폭발이 우리 겨레와 인류에게 준런히 깨우치고 있는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과 끝까지 대결하고 전쟁하러 하는것은 설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미련한 행위이고 이 땅에 파국적인 핵재난을 초래하려는 후안무치한 망당이 아닐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의 원자로들이 언제 불이 달릴지 모를 조선반도의 위험천만한 핵화약더미들이라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엄청난 방사능추출위험은 북이 아니라 남쪽에 있다.

비가 내리듯 방사능피해를 먼저 우려해야만 하는 오늘의 참담한 세계적핵공포사태는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이 살길은 오직 화해와 협력의 길, 민족공조와 평화의 길이라는 교훈을 사무치게 새겨주고있다.

남조선의 대결분자들은 남을 길고장기 전에 제 집안문제부터 걱정하고 자살적인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중지해야 할것이다. 김철호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온 죄악의 3년

며칠후면 남조선에서 《4.27재보충선거》가 진행되게 된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재집권의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지난 시기의 수법 그대로 갖은 《공약》과 같은 언리로 민심을 기만하며 어떻게 하나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발악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은 현 집권당국의 외세의존과 사대매국정치, 파쇼와 동족대결정책에 극도의 환멸을 느끼고 등을 돌려내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지난 리승만독재 《정권》 시기 인민들이 내뿜었던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다시 등장하고있는것도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집권후 저지른 엄청난 죄악중에는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반통일죄악도 들어있다.

남조선당국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떠벌이며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극단한 동족대결정책, 류태없는 반통일방정으로 6.15이후 활력있게 전진해온 북남관계를 여지없이 망쳐놓았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병영을 이룩하기 위한 리념적기초와 근본원칙, 실현방도를 명시한 북남관계발전의 초석이며 조국통일의 대장이다.

그러나 남조선보수세력은 집권하자마자 북남공동선언에 대해 《추상적》이니, 《원론적》이니 뭐니 시비중상하면서 전면제결로를 운운해나섰는가 하면 그 무슨 《선언의 시대를 넘는 실천의 시대》를 표방하면서 그것을 전면부정하였다.

지어는 이전 《정권》이 합의한것을 새 《정권》이 《리행할 무가 없다.》고 하면서 6.15이후 북남관계에

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을 모조리 의미하고 배척하였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거부한 남조선당국은 반민족적인 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정식 선포하고 《북핵》이 있는 한 《대북협상》과 《핵협력》은 없을것이라더니,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 그 어떤 대화나 협력을 해서는 안된단느니 하며 북남관계에 전면적인 차단봉을 내리었다.

남조선각계에서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왔지만 보수집권세력은 이를 외면하고 《우보천리》니 뭐니 하며 《기타리는 전박》, 반공화국암살 전략에만 매달렸다.

공화국의 아량있고 대범한 조치로 하여 북남사이에 여러차례 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가 마련되였지만 그것마저도 《근본적변화가 아닌 점진적변화》니, 《진정성》이니 하며 서슴없이 차단되고 깨버린 남조선당국이다.

남조선언론들이 《대화를 기피하는 리명박(정부)의 사고가 오늘의 남북관계악화를 가져왔다.》고 폭로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사이에 온전한 대화가 한번도 열리지 못하였으며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협력사업과 교류, 접촉이 중단되였다.

남조선당국이 지난 3년간 《대북정책》의 실패가 명백히 확증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칙고수》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 《흡수통일》을 이루어보자는것이다.

집권 첫째에 미국을 핵강국하면서 북남장령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반공화국베라살포지역에 대한 조준격파사격범위를 전면격파사격으로 넓히게 될것이라고 남측에 통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이 최후의 궁극적목표》라고 떠벌인 남조선 현 집권자가 그 누구의 《금변사태》를 가부한 북침각본인 《비상통치계획-부총》, 《통일대계탐색연구》를 조작배포하고 지난해 《8.15경축사》라는데서 그 무슨 《3단계통일방안》과 《통일설》에 대하여 운운한것 등은 그들이 추구하는것이 결국은 체제대결이고 《흡수통일》이라는것을 여지없이 증명해주고있다.

결국 남조선당국이 《잃어버린 10년》을 떠벌이며 집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북남관계의 전망에 대하여 우려한것이 현실로 되고말았다.

남조선당국이 평화의 분기가 떠들던 조선반도에 전쟁위험을 길게 몰아온것도 용납할수 없는 반민족적죄악이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군사력을 리용하여 북이 《변화된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것이 주요목표》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 누구의 《선해포기》와 《개혁개방》으로 유도할수 있는 방북도 《군사적우세》에 있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북침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그들이 집권하자마자 처음으로 한것도 미국의 초대형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위험한 핵공격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북침전쟁연습을 벌인것이다.

남조선당국의 호전성은 공화국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선제타격》폭언을 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적라라하게 폭로되였다.

남조선 《정권》이 등장한지 4개월밖에 안된 짧은 기간에 무려 30여차, 2010년말까지 무려 120여회의 남조선 미국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 남조선군

단독의 주요 군사훈련은 980여차나 벌려놓은 사실은 그들이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날뛰었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은 지난해에 반공화국모략국인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절정에 달하였다.

조성광범은 함선침몰사건의 모략적 징상이 날날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그것을 《북의 도발》로 곁들면서 북남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고 전쟁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이를 구실로 조선서해와 동해, 남해에서 대규모의 연합 해상훈련을 벌린데 이어 연평도도발을 감행하고 울해에 들어와서도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그 어느때보다 광란적으로 벌려놓은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의도적으로 격화시켜 북침전쟁의 불집을 기어코 터지려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한마디로 남조선당국의 집권 3년은 극단한 동족대결정책과 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를 총두리째 마사버리고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아온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죄악의 3년이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분노한 민심은 용암마냥 무섭게 끓어번지고있다.

각종 시위를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있는 남 《정부》투쟁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압살》하기 위해 그 어떤, 비어 전쟁도 서슴지 않으려는 통치배들에 대한 주주와 분노의 표식이고 민주와 통일의 세세상을 투쟁으로 안아오려는 각계층의 견결한 의지의 분출이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분노한 민심을 바로 보고 위험천만한 동족대결정책, 전쟁책동을 버려야 한다.

주 광일

서 우리 군대는 이미 선포한 조준격파사격범위를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역에 가하는 전면격파사격으로 넓혀진 된다는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

남측의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은 우리 군대의 예측할수 없는 무자비한 징벌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리명박역적배당은 그 어떤 교묘한 수법을 적용해서 반공화국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으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똑바로 알고 그 무모한 동족대결책동을 즉시 걷어치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법》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민주리총을 비롯한 로조단체들을 《리적》단체로 몰아내버리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여왔으며 생존리사수를 위해 투쟁에 나선 로동자들을 폭압무력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끝내 총들의 불집을 일으키려는가

《국회》에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것이다.

남조선에서 《5대 로동현안》과 같은 사태들은 로동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생존련유리행위들이다.

《로동현안》을 비롯한 로동현안 5개항목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민주리총을 비롯한 로조단체들을 《리적》단체로 몰아내버리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여왔으며 생존리사수를 위해 투쟁에 나선 로동자들을 폭압무력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로동현안》을 비롯한 로동현안 5개항목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민주리총을 비롯한 로조단체들을 《리적》단체로 몰아내버리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여왔으며 생존리사수를 위해 투쟁에 나선 로동자들을 폭압무력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로동현안》을 비롯한 로동현안 5개항목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민주리총을 비롯한 로조단체들을 《리적》단체로 몰아내버리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여왔으며 생존리사수를 위해 투쟁에 나선 로동자들을 폭압무력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의 보수배당이 위험천만한 베라살포행위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얼마전에도 보수당국은 극우보수단체들을 내세워 수십만장의 베라와 IUS\$짜리 지폐들을 매단 풍선들을 극도로 날려보내었다.

이것은 극도의 반공화국적대외식에 사로잡혀 북남관계를 극한대결과 군사적총돌,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이며 악랄한 도발소동이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가 지금 러지기 직전의 전쟁화약고를 방불케 하고있다는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이르고 사소한 우발적소동에 의해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의 불꽃이 될수 있는 위험천만한 지역이 조선반도이다.

이런 속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정치체제를 로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베라살포행위가 어떤 협박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지 모를 사람은 없다.

이미 공화국의 군대는 남측의 적대적인 베라살포행위가 계속될 경우 자위권수호의 원칙에서 필진가를 비롯한 반공화국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들을 직접조준격파사격할것이라는 단호한 립장을 천명한다 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반공화국베라가 《전쟁시한탄》이라며 모략적인 심리전책동을 규탄하는 각계의 분노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

류철진

북남장령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최근 리명박역적배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극도로 달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2일 남측 피뢰군부에 통지문을 보내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치졸한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에 계속 매달리는가 하면 우리측에 총란까지 발사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대응이 두려워 도적교양이처럼 못사람들의 눈을 피하게며 4월 15일에는 파주시 립진각에서 20여만장의 베라를, 14일에는 전선중부 련련군 증면 삼

최근 남조선의 《국회환경로동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이 《5대 로동현안》을 로의 문제에서 제외시킨것을 계기로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을 비롯한 남조선로조단체들은 물론 남조선각계 로동자들의 초보적인 생존리까지 무시해버리는 현 보수집권세력을 강력히 규탄해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5대 로동현안》은 쌍로자동차 및 한진중공업정리해고문제, 현대자동차비정규직문제, 진북베스파업사태, 삼성반도체백혈병재 등으로서 남조선로동자들의 생존권과 관련되는 문제들이다.

지난 2009년에 《쌍로자동차》회사측은 1년후의 재복직과 함께 생산물량에 따른 순환해배치를 약속하면서 구조조정의 명목하에 수많은 로동

자들을 해고시켰다. 정리해고를 반대하여 로동자들이 결사적으로 항거해나서자 남조선보수세력은 살인적인 방법으로 로동자들을 진로압하여 수십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고 300여명의 로동자들에게 《전파자》의 딱지를 붙여놓았으며 경찰

들의 폭력에 의해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지불되였던 《의료보험금》마저도 빼앗아갔다. 한편 회사측은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현실처럼 췌버리고 오히려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적용하여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극도로 위협하였다.

결국 파업이 일어난지 2년이 되어오는 기간 14명에 달하는 쌍로자동차로동자들과

끝내내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현 피뢰당국의 호전적립장이 더욱더 분별없는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강조하면서 우리 군대의 원칙적립장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통고하였다.

이미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베라살포행위는 심리전의 한 형태이며 그것은 곧 교전상대방에 대한 승결을 얻는 전쟁도

그의 가족들이 극도의 정신적압력과 경제적시달림으로 하여 울화병으로 사망하거나 자살의 길을 택하였다고 한다. 한진중공업에서는 지난 2월 172명의 로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되어 일자리를 잃었으며 현대자동차의 수백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로동자들

《경계》를 받아 한순간에 실업자의 신세가 되였다. 못 받은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여 무리로 해고당한 사례는 진북베스파업체에 수도 일어났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남조선사회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는것은 곧 삶의 권리를 잃는것과 다름이 없다.

하기에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진보세력들과

발행위로 된다. 따라서 베라살포지역에 대한 직접조준격파사격은 교전일방인 우리 군대가 정전정당파기자들에게 가하는 정정당한 징벌로 된다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더우기 우리 군대의 대응이 두려워 남측이 교활한 방법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베라살포행위에 매달리고있는 조건에

야당들이 《국회》에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것이다.

남조선에서 《5대 로동현안》과 같은 사태들은 로동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생존련유리행위들이다.

《경제살리기》의 미명하에



반대의 두분발한 반공화국모략행위를

대결적자세를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 겨레와 세계 평화에호인민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숨막히는 대결과 다치면 터질듯 한 전쟁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하루빨리 북과 남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태도변화》를 요구하면서 사태해결에 계속 난관만을 조성하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얼마전 서울을 행각한 미국부장관에게도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공조》를 구걸해나섰다.

다 아는바와 같이 북남사이에 첨예한 대결상태와 군사적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제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사이에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있는것은 남측의 대화부정자세, 관계개선주책동과 관련되어있다. 그들은 낱아빠진 《진정성》타령을 계속 외워대면서 대화의 앞길에 풀수 없는 전제조건만을 가득 쌓아놓고있다.

그 누구의 《책임인정》을 요구하는 《천안》호침몰사건만 보아도 북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비렬한 남조선이라는것이 드러날대로 드러난 상태이다. 지난해 말에 러진 연평도사격전도 진짜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는 남조선 당국자들이다. 그들은 극도의 동족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판

게로 만들었으며 불법비밀의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을 끝내내 고집하고 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려 서해를 전쟁위험이 길게 떠도는 바다로 만들었다. 그런 속에서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측명예를 수천발의 포탄을 쏘아대는 무모한 도발소동을 감행함으로써 끝내는 포안이 오가는 협박한 사태를 초래하였다. 포사격전의 배경으로 보나, 정위로 보나 그 책임은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남조선당국에 있는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지난해의 위험천만한 총돌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동족에 대한 적대시대결정책부터 버려야 하며 휘당막에 하루빨리 나와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성의를 보여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쿵저러쿵 하는것은 주변정세호를 가로막고 북남대화과 2차회담을 회피하며 《대북정책》의 총파산으로 초래된 고립의 위기에 벗어나보려는 구차스러운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회담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침에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고 평화를 보장하러는것은 공화국의 변함없는 립장과 자세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의 《태도변화》를 떠들것기 아니라 저들 자신부터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최명제

남조선당국은 금강산관광합의를 파기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 상보

얼마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남조선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적 조항의 효력을 취소하고 북측지역을 통한 국제관광을 우리측이 맡아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보수당국에 의하여 근 3년동안이나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재개발 가망도 없으며 현대측과의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내외의 공정한 여론은 우리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결같이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고있으며 남조선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철면피하게도 그 무슨 《합의위반》이니, 《발아들일수 없다》이니 하면서 당치않게도 《철회》를 운운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은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시비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번 조치의 경위와 오늘날의 사태를 벗어날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이 상보를 발표한다.

우리는 대법하게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고려하여 2009년 8월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기회에 최고의 수준에서 특별담보를 해주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정작 《3대조진》에 대해 담보를 주자 민간업자와의 합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생떼를 썼으며 우리의 당국적책제에 대해서는 이구수일 지루실을 대며 비틀다가 2010년 2월 마지못해 풀려나와 《3대조진》 해결을 위한 우리의 합의서 초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례하게 놀아대다가 결국 회담을 결렬시키버렸다.

우리측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거듭 제기하였지만 남조선당국은 그에 응대조차 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은 현대측 관계자들이 우리와 만나는데까지 악랄하게 가로막음으로써 금강산관광사업당사자들끼리의 접촉도 제대로 할수 없게 하였다.

지난 3월 15일과 30일에 있는 우리 아태와 현대측과의 실무접촉때 괴뢰들의 통제로 현대측의 책임적인 관계자들은 나오지 못하였으며 철저한 보도관제로 접촉행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하였다.

남조선당국은 관광재개를 가로막기 위해 관광과 하등의 관련도 없는 핵문제와 함선침몰사건, 연평도포격사건까지 거들어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웠는가 하면 금강산관광개발을 모질하는 미국의 령행사들을 끌어들여 《사업권침해》로 뒤엎어 버렸다.

참으로 남조선당국의 금강산관광파탄책동에 그 악랄성과 비열성에 있어서 경악을 자아낼 일이다.

남조선당국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적목적으로부터 금강산관광을 파탄시켰기이다.

이 모든 사실은 금강산관광을 파란으로 몰아간 장본인이 남조선당국이라는 것을 뚜렷히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정치적분쟁의 희생물로 되어서는 안되며 관광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아태와 현대사회의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밝힌것이다.

협력사업의 일반적관례를 보아도 불상사가 일어나면 쌍방사업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건당으로 처리하는것이 그 때 당국이 간섭하여 불순한 정치목적에 악용하면서 사업자체를 전면중단시키는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형편이다.

남조선당국은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피주기》요, 《돈줄》이요 하면서 그것을 저들의 불순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의 통각무로 만들었다.

피주기로 말하면 금강산관광을 우리가 최고의 특혜를 남측에 준것으로서 우리가 남측에 피주기를 하였으면 했지 결코 남측이 우리에게 피주기를 한것은 없다.

금강산관광의 가치는 그 관광자원의 견지에서 보나 남북동포형제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에게 준 기쁨과 동양의 희망으로 보나 돈으로 헤아릴수 없을 정도이다.

더우기 우리는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을 남측 관광을 위해 통제로 내주었다.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혔는지도 모르고 《피주기》니 뭐니 하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금강산관광이 그 누구의 《돈줄》》이라고 하는것에 대해 말한 대로 모든것을 장사아치의 눈으로밖에 볼줄 모르는 남조선당국의 추물적자태를 드러낸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금강산관광으로 얻는 수입은 우리에게 있어서 눈꼽만큼도 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금강산관광대가 북의 핵무기개발과 미사일발사에 홀려들어간다는 여론을 내뿜으면서 금강산관광대가를 돈이 아니라 물건같은것으로 주어야 한다는 소동까지 퍼뜨림으로써 피주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동족제과 관광파탄책동에 미쳐들어가았는가를 보여주는 비근한 실례이다.

북남당국합의위반자도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북과 남사이에 사죄,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분야와 함께 관광사업을 활성화할데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북과 남은 2001년 9월에 있는 제5차 북남상급회담과 2003년 4월에 진행된 제10차 북남상급회담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당국 회담들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모든것을 뒤집은것은 현 남

조선보수당국이다.

북남수뇌분들이 채택한 북남공동선언들을 통채로 유린한 남조선당국이 북남당국합의위반을 입에 올리는 자체가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국제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건당으로 처리하는것이 그 때 당국이 간섭하여 불순한 정치목적에 악용하면서 사업자체를 전면중단시키는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형편이다.》를 운운하며 《합의위반》이니, 《발아들일수 없다》니 하면서 당치않게도 《철회》를 운운하고있다.

우리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제 나라, 제 땅인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주권행사를 하는데 남조선당국이 코를 들이밀고 횡설수설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의 비웃음만 자아내는 주제넘는 처사이다.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키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이 현대의 독점권이 취소되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온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독점권이 오늘날에 와서 취소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이 벗어날 후과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누구의 합의위반과 조치철회에 대해 운운할 환조각의 체면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제 나라, 제 땅인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주권행사를 하는데 남조선당국이 코를 들이밀고 횡설수설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의 비웃음만 자아내는 주제넘는 처사이다.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키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이 현대의 독점권이 취소되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온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독점권이 오늘날에 와서 취소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이 벗어날 후과이다.

기할수 있게 되어있지만 오늘 북남사이에는 남조선당국의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상사중재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그 어떤 기구도 존재하지 않고있다.

우리의 이번 조치는 공화국법에 완전히 부합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 제28조에는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입은 경우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에 리행하지 못한 경우 합의를 취소하게 되어있다.

또한 공화국 민법 제96조에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그것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보아도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무리행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손해증가를 경감할수 있는 권리,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수 있는 권리를 가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치는 사업당사자간 및 북남당국간 합의에 위반되는것이 없을뿐 아니라 공화국법과 국제법, 국제관례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우리는 이번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하면서 북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관광을 아태가 맡아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수 있으며 남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관광을 현대가 계속 맡아하도록 하였다.

금강산관광이 현실적으로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측에 앞으로는 예정되어 남측지역 관광을 계속 임업한것은 현대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신의와 특혜의 표시이다.

우리는 현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난 근 3년동안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참고 또 참아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현대측과의 신의를 귀중히 여기고 금강산관광사업의 손잡고 잘해나갈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남조선인민들의 금강산관광길을 끊어놓고 우리의 국제관광도 방해하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심보 고약한 동족대결미치광이들이나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이 비열한 관광파탄책동으로 얻을것은 고립과 민족의 규탄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개변과 모략소동으로도 금강산관광합의를 파기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주제100(2011)년 4월 16일 평 양

1.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킨 장본인은 남조선당국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금강산관광은 세계적명산인 금강산을 보고 싶어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절절한 심정과 화해와 협력,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 그리고 남조선 현대그룹의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이 1998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민족분열상선 처음으로 남북동포들의 금강산관광길이 열렸을 때 온 겨레는 커다란 기쁨에 휩싸였으며 전세계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영하였다.

력사적인 6월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후 금강산관광은 급격히 확대발전하였으며 남조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금강산관광의 소원을 성취하였다.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근 10년간 금강산을 다녀간 남조선관광객수는 무려 3550차에 192만 666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는 남조선 《국회》의원과 여야정치인, 청와대와 행정부장, 차관을 비롯한 고위관리들도 포함되었다.

금강산관광을 통하여 민족의 혈액이 뜨겁게 이어지고 통일이 운이 급격히 높아졌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금강산관광은 단순한 산천경관이 아닌 통일의 무지개다리이고 혈육의 정을 두터이하는 오작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반동일세력은 금강산관광에 대해 처음부터 달가와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파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89년 남조선 헌사특색 《정권》은 우리 아태와 현대측사이에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의정서가 처음 체결되었을 때 그것을 무참히 짓밟아버려 관광을 수년간이나 지연시켰으며 1998년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금강산관광길이 열리자 야당으로 전락된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관광대가의 《군사비전용》을 떠들며 그에 반기를 들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것을 기회로 2002년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금강산관광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지시켰으며 2003년에는 《대북송금》특검소동을 일으켜 금강산관광길을 개척한 기업가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반인륜적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금강산관광파탄책동은 2008년 보수패당이 집권하면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금강산관광길을 끊어놓으려고 여러모로 책동하던 끝에 2008년 7월 관광객사건을 수실로 기다렸다는듯이 즉시 관광중단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관광객사건으로 말하면 그 1차지원인은 금강산에 온 남조선의 정체불명의 인원이 이른 새벽 우리의 군사통제구역에 불법 침입하여 일어난 사건으로서 사실상 그 책임은 인민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남조선당국에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사건경위가 어떠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견지에서 책임을 더 따지지 않고 사건발생 즉시 남측 관계자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조사, 확인할수 있게 하여주었으며 유감표시도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관광객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담보의 《3대조진》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광을 재개할수 없다고 한사코 고집하였다.

우리는 대법하게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고려하여 2009년 8월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기회에 최고의 수준에서 특별담보를 해주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정작 《3대조진》에 대해 담보를 주자 민간업자와의 합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생떼를 썼으며 우리의 당국적책제에 대해서는 이구수일 지루실을 대며 비틀다가 2010년 2월 마지못해 풀려나와 《3대조진》 해결을 위한 우리의 합의서 초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례하게 놀아대다가 결국 회담을 결렬시키버렸다.

우리측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거듭 제기하였지만 남조선당국은 그에 응대조차 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은 현대측 관계자들이 우리와 만나는데까지 악랄하게 가로막음으로써 금강산관광사업당사자들끼리의 접촉도 제대로 할수 없게 하였다.

지난 3월 15일과 30일에 있는 우리 아태와 현대측과의 실무접촉때 괴뢰들의 통제로 현대측의 책임적인 관계자들은 나오지 못하였으며 철저한 보도관제로 접촉행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하였다.

남조선당국은 관광재개를 가로막기 위해 관광과 하등의 관련도 없는 핵문제와 함선침몰사건, 연평도포격사건까지 거들어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웠는가 하면 금강산관광개발을 모질하는 미국의 령행사들을 끌어들여 《사업권침해》로 뒤엎어 버렸다.

참으로 남조선당국의 금강산관광파탄책동에 그 악랄성과 비열성에 있어서 경악을 자아낼 일이다.

남조선당국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적목적으로부터 금강산관광을 파탄시켰기이다.

이 모든 사실은 금강산관광을 파란으로 몰아간 장본인이 남조선당국이라는 것을 뚜렷히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정치적분쟁의 희생물로 되어서는 안되며 관광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아태와 현대사회의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밝힌것이다.

협력사업의 일반적관례를 보아도 불상사가 일어나면 쌍방사업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건당으로 처리하는것이 그 때 당국이 간섭하여 불순한 정치목적에 악용하면서 사업자체를 전면중단시키는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형편이다.

남조선당국은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피주기》요, 《돈줄》이요 하면서 그것을 저들의 불순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의 통각무로 만들었다.

피주기로 말하면 금강산관광을 우리가 최고의 특혜를 남측에 준것으로서 우리가 남측에 피주기를 하였으면 했지 결코 남측이 우리에게 피주기를 한것은 없다.

금강산관광의 가치는 그 관광자원의 견지에서 보나 남북동포형제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에게 준 기쁨과 동양의 희망으로 보나 돈으로 헤아릴수 없을 정도이다.

더우기 우리는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을 남측 관광을 위해 통제로 내주었다.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혔는지도 모르고 《피주기》니 뭐니 하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금강산관광이 그 누구의 《돈줄》》이라고 하는것에 대해 말한 대로 모든것을 장사아치의 눈으로밖에 볼줄 모르는 남조선당국의 추물적자태를 드러낸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금강산관광으로 얻는 수입은 우리에게 있어서 눈꼽만큼도 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금강산관광대가 북의 핵무기개발과 미사일발사에 홀려들어간다는 여론을 내뿜면서 금강산관광대가를 돈이 아니라 물건같은것으로 주어야 한다는 소동까지 퍼뜨림으로써 피주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동족제과 관광파탄책동에 미쳐들어가았는가를 보여주는 비근한 실례이다.

북남당국합의위반자도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북과 남사이에 사죄,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분야와 함께 관광사업을 활성화할데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북과 남은 2001년 9월에 있는 제5차 북남상급회담과 2003년 4월에 진행된 제10차 북남상급회담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당국 회담들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모든것을 뒤집은것은 현 남

조선보수당국이다.

북남수뇌분들이 채택한 북남공동선언들을 통채로 유린한 남조선당국이 북남당국합의위반을 입에 올리는 자체가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국제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건당으로 처리하는것이 그 때 당국이 간섭하여 불순한 정치목적에 악용하면서 사업자체를 전면중단시키는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형편이다.》를 운운하며 《합의위반》이니, 《발아들일수 없다》니 하면서 당치않게도 《철회》를 운운하고있다.

우리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제 나라, 제 땅인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주권행사를 하는데 남조선당국이 코를 들이밀고 횡설수설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의 비웃음만 자아내는 주제넘는 처사이다.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키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이 현대의 독점권이 취소되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온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독점권이 오늘날에 와서 취소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이 벗어날 후과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누구의 합의위반과 조치철회에 대해 운운할 환조각의 체면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제 나라, 제 땅인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주권행사를 하는데 남조선당국이 코를 들이밀고 횡설수설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의 비웃음만 자아내는 주제넘는 처사이다.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키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이 현대의 독점권이 취소되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온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독점권이 오늘날에 와서 취소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이 벗어날 후과이다.

기할수 있게 되어있지만 오늘 북남사이에는 남조선당국의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상사중재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그 어떤 기구도 존재하지 않고있다.

우리의 이번 조치는 공화국법에 완전히 부합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 제28조에는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입은 경우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에 리행하지 못한 경우 합의를 취소하게 되어있다.

또한 공화국 민법 제96조에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그것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보아도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무리행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손해증가를 경감할수 있는 권리,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수 있는 권리를 가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치는 사업당사자간 및 북남당국간 합의에 위반되는것이 없을뿐 아니라 공화국법과 국제법, 국제관례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우리는 이번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하면서 북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관광을 아태가 맡아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수 있으며 남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관광을 현대가 계속 맡아하도록 하였다.

금강산관광이 현실적으로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측에 앞으로는 예정되어 남측지역 관광을 계속 임업한것은 현대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신의와 특혜의 표시이다.

우리는 현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난 근 3년동안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참고 또 참아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현대측과의 신의를 귀중히 여기고 금강산관광사업의 손잡고 잘해나갈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남조선인민들의 금강산관광길을 끊어놓고 우리의 국제관광도 방해하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심보 고약한 동족대결미치광이들이나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이 비열한 관광파탄책동으로 얻을것은 고립과 민족의 규탄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개변과 모략소동으로도 금강산관광합의를 파기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주제100(2011)년 4월 16일 평 양

2. 남조선당국의 관광파탄책동은 북남합의에 대한 위반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은 우리 아태와 남측 현대사이에 맺어진 합의에 따라 시작된것으로서 남조선 당국이 개입할 아무런 조건과 명분도 없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관광문제를 북남대결에 악용한것은 관광사업자간 및 북남당국간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우리는 대법하게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고려하여 2009년 8월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기회에 최고의 수준에서 특별담보를 해주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정작 《3대조진》에 대해 담보를 주자 민간업자와의 합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생떼를 썼으며 우리의 당국적책제에 대해서는 이구수일 지루실을 대며 비틀다가 2010년 2월 마지못해 풀려나와 《3대조진》 해결을 위한 우리의 합의서 초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례하게 놀아대다가 결국 회담을 결렬시키버렸다.

우리측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거듭 제기하였지만 남조선당국은 그에 응대조차 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은 현대측 관계자들이 우리와 만나는데까지 악랄하게 가로막음으로써 금강산관광사업당사자들끼리의 접촉도 제대로 할수 없게 하였다.

지난 3월 15일과 30일에 있는 우리 아태와 현대측과의 실무접촉때 괴뢰들의 통제로 현대측의 책임적인 관계자들은 나오지 못하였으며 철저한 보도관제로 접촉행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하였다.

남조선당국은 관광재개를 가로막기 위해 관광과 하등의 관련도 없는 핵문제와 함선침몰사건, 연평도포격사건까지 거들어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웠는가 하면 금강산관광개발을 모질하는 미국의 령행사들을 끌어들여 《사업권침해》로 뒤엎어 버렸다.

참으로 남조선당국의 금강산관광파탄책동에 그 악랄성과 비열성에 있어서 경악을 자아낼 일이다.

남조선당국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적목적으로부터 금강산관광을 파탄시켰기이다.

이 모든 사실은 금강산관광을 파란으로 몰아간 장본인이 남조선당국이라는 것을 뚜렷히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정치적분쟁의 희생물로 되어서는 안되며 관광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아태와 현대사회의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밝힌것이다.

협력사업의 일반적관례를 보아도 불상사가 일어나면 쌍방사업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건당으로 처리하는것이 그 때 당국이 간섭하여 불순한 정치목적에 악용하면서 사업자체를 전면중단시키는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형편이다.

남조선당국은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피주기》요, 《돈줄》이요 하면서 그것을 저들의 불순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의 통각무로 만들었다.

피주기로 말하면 금강산관광을 우리가 최고의 특혜를 남측에 준것으로서 우리가 남측에 피주기를 하였으면 했지 결코 남측이 우리에게 피주기를 한것은 없다.

금강산관광의 가치는 그 관광자원의 견지에서 보나 남북동포형제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에게 준 기쁨과 동양의 희망으로 보나 돈으로 헤아릴수 없을 정도이다.

더우기 우리는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을 남측 관광을 위해 통제로 내주었다.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혔는지도 모르고 《피주기》니 뭐니 하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금강산관광이 그 누구의 《돈줄》》이라고 하는것에 대해 말한 대로 모든것을 장사아치의 눈으로밖에 볼줄 모르는 남조선당국의 추물적자태를 드러낸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금강산관광으로 얻는 수입은 우리에게 있어서 눈꼽만큼도 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금강산관광대가 북의 핵무기개발과 미사일발사에 홀려들어간다는 여론을 내뿜면서 금강산관광대가를 돈이 아니라 물건같은것으로 주어야 한다는 소동까지 퍼뜨림으로써 피주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동족제과 관광파탄책동에 미쳐들어가았는가를 보여주는 비근한 실례이다.

북남당국합의위반자도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북과 남사이에 사죄,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분야와 함께 관광사업을 활성화할데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북과 남은 2001년 9월에 있는 제5차 북남상급회담과 2003년 4월에 진행된 제10차 북남상급회담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당국 회담들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모든것을 뒤집은것은 현 남

조선보수당국이다.

북남수뇌분들이 채택한 북남공동선언들을 통채로 유린한 남조선당국이 북남당국합의위반을 입에 올리는 자체가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국제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건당으로 처리하는것이 그 때 당국이 간섭하여 불순한 정치목적에 악용하면서 사업자체를 전면중단시키는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형편이다.》를 운운하며 《합의위반》이니, 《발아들일수 없다》니 하면서 당치않게도 《철회》를 운운하고있다.

우리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제 나라, 제 땅인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주권행사를 하는데 남조선당국이 코를 들이밀고 횡설수설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의 비웃음만 자아내는 주제넘는 처사이다.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키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이 현대의 독점권이 취소되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온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독점권이 오늘날에 와서 취소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이 벗어날 후과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누구의 합의위반과 조치철회에 대해 운운할 환조각의 체면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제 나라, 제 땅인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주권행사를 하는데 남조선당국이 코를 들이밀고 횡설수설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의 비웃음만 자아내는 주제넘는 처사이다.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키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이 현대의 독점권이 취소되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온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독점권이 오늘날에 와서 취소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이 벗어날 후과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누구의 합의위반과 조치철회에 대해 운운할 환조각의 체면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제 나라, 제 땅인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주권행사를 하는데 남조선당국이 코를 들이밀고 횡설수설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의 비웃음만 자아내는 주제넘는 처사이다.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키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이 현대의 독점권이 취소되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온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독점권이 오늘날에 와서 취소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이 벗어날 후과이다.

기할수 있게 되어있지만 오늘 북남사이에는 남조선당국의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상사중재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그 어떤 기구도 존재하지 않고있다.

우리의 이번 조치는 공화국법에 완전히 부합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 제28조에는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입은 경우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에 리행하지 못한 경우 합의를 취소하게 되어있다.

또한 공화국 민법 제96조에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그것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보아도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무리행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손해증가를 경감할수 있는 권리,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수 있는 권리를 가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치는 사업당사자간 및 북남당국간 합의에 위반되는것이 없을뿐 아니라 공화국법과 국제법, 국제관례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우리는 이번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하면서 북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관광을 아태가 맡아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수 있으며 남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관광을 현대가 계속 맡아하도록 하였다.

금강산관광이 현실적으로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측에 앞으로는 예정되어 남측지역 관광을 계속 임업한것은 현대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신의와 특혜의 표시이다.

우리는 현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난 근 3년동안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참고 또 참아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현대측과의 신의를 귀중히 여기고 금강산관광사업의 손잡고 잘해나갈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남조선인민들의 금강산관광길을 끊어놓고 우리의 국제관광도 방해하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심보 고약한 동족대결미치광이들이나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이 비열한 관광파탄책동으로 얻을것은 고립과 민족의 규탄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개변과 모략소동으로도 금강산관광합의를 파기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주제100(2011)년 4월 16일 평 양

3. 금강산국제 관광조치는 우리의 합법적인 주권행사이다

남조선당국의 책동으로 금강산관광이 근 3년동안이나 중단되고 앞으로 재개발 가망도 없게 된 조건에서 우리가 존엄과 주권을 훼손당하면서까지 팔짱끼고 가만히 앉아있을수만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남조선당국의 금강산관광중단책동으로 인한 우리의 손실은 막대하다.

지난 근 3년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가 입은 직간접손실액은 무려 수천억원에 달하며 전담계획에 따른 금강산개발사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문화발전과 우리 인민의 문명생활 향상에 엄청난 지장을 주었다.

남조선의 기업가들과 주민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현대측의 통제로 의하더라도 지난 33개월간 금강산관광중단으로 현대가 큰 피해를 남조선 돈으로 무려 4800여억원에 달한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하였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녹아났다.

금강산으로 오가는 관광객들에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던 남조선강원도 고성주민들은 살길이 막막하여 정든 고향땅을 버리고 정착없이 떠나거나 죽기까지 하는 비참한 사태가 초래되고있다.

금강산관광중단이 민족의 가슴에 준 상처는 또 얼마인가.

계계의 기쁨과 회일, 통일의 환호성이 넘쳐나던 금강산이 인적절멸적막장으로 되고 그토록 금강산을 보고싶어하는 남북동포들의 소망은 다시 한갓 꿈으로 되돌아가고말았다.

이런 사태를 그대로 방임해둘수 없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오늘 금강산관광을 희망하고 관광사업참가를 요청하는 해외대상들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를

우리는 대법하게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고려하여 2009년 8월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기회에 최고의 수준에서 특별담보를 해주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정작 《3대조진》에 대해 담보를 주자 민간업자와의 합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생떼를 썼으며 우리의 당국적책제에 대해서는 이구수일 지루실을 대며 비틀다가 2010년 2월 마지못해 풀려나와 《3대조진》 해결을 위한 우리의 합의서 초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례하게 놀아대다가 결국 회담을 결렬시키버렸다.

우리측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거듭 제기하였지만 남조선당국은 그에 응대조차 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은 현대측 관계자들이 우리와 만나는데까지 악랄하게 가로막음으로써 금강산관광사업당사자들끼리의 접촉도 제대로 할수 없게 하였다.

지난 3월 15일과 30일에 있는 우리 아태와 현대측과의 실무접촉때 괴뢰들의 통제로 현대측의 책임적인 관계자들은 나오지 못하였으며 철저한 보도관제로 접촉행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하였다.

남조선당국은 관광재개를 가로막기 위해 관광과 하등의 관련도 없는 핵문제와 함선침몰사건, 연평도포격사건까지 거들어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웠는가 하면 금강산관광개발을 모질하는 미국의 령행사들을 끌어들여 《사업권침해》로 뒤엎어 버렸다.

참으로 남조선당국의 금강산관광파탄책동에 그 악랄성과 비열성에 있어서 경악을 자아낼 일이다.

남조선당국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적목적으로부터 금강산관광을 파탄시켰기이다.

이 모든 사실은 금강산관광을 파란으로 몰아간 장본인이 남조선당국이라는 것을 뚜렷히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정치적분쟁의 희생물로 되어서는 안되며 관광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아태와 현대사회의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밝힌것이다.

협력사업의 일반적관례를 보아도 불상사가 일어나면 쌍방사업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건당으로 처리하는것이 그 때 당국이 간섭하여 불순한 정치목적에 악용하면서 사업자체를 전면중단시키는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형편이다.

남조선당국은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피주기》요, 《돈줄》이요 하면서 그것을 저들의 불순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의 통각무로 만들었다.

피주기로 말하면 금강산관광을 우리가 최고의 특혜를 남측에 준것으로서 우리가 남측에 피주기를 하였으면 했지 결코 남측이 우리에게 피주기를 한것은 없다.

금강산관광의 가치는 그 관광자원의 견지에서 보나 남북동포형제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에게 준 기쁨과 동양의 희망으로 보나 돈으로 헤아릴수 없을 정도이다.

더우기 우리는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을 남측 관광을 위해 통제로 내주었다.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혔는지도 모르고 《피주기》니 뭐니 하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금강산관광이 그 누구의 《돈줄》》이라고 하는것에 대해 말한 대로 모든것을 장사아치의 눈으로밖에 볼줄 모르는 남조선당국의 추물적자태를 드러낸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금강산관광으로 얻는 수입은 우리에게 있어서 눈꼽만큼도 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금강산관광대가 북의 핵무기개발과 미사일발사에 홀려들어간다는 여론을 내뿜면서 금강산관광대가를 돈이 아니라 물건같은것으로 주어야 한다는 소동까지 퍼뜨림으로써 피주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동족제과 관광파탄책동에 미쳐들어가았는가를 보여주는 비근한 실례이다.

북남당국합의위반자도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북과 남사이에 사죄,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분야와 함께 관광사업을 활성화할데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북과 남은 2001년 9월에 있는 제5차 북남상급회담과 2003년 4월에 진행된 제10차 북남상급회담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당국 회담들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모든것을 뒤집은것은 현 남

조선보수당국이다.

북남수뇌분들이 채택한 북남공동선언들을 통채로 유린한 남조선당국이 북남당국합의위반을 입에 올리는 자체가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국제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건당으로 처리하는것이 그 때 당국이 간섭하여 불순한 정치목적에 악용하면서 사업자체를 전면중단시키는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형편이다.》를 운운하며 《합의위반》이니, 《발아들일수 없다》니 하면서 당치않게도 《철회》를 운운하고있다.

우리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제 나라, 제 땅인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주권행사를 하는데 남조선당국이 코를 들이밀고 횡설수설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의 비웃음만 자아내는 주제넘는 처사이다.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키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이 현대의 독점권이 취소되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온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독점권이 오늘날에 와서 취소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이 벗어날 후과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누구의 합의위반과 조치철회에 대해 운운할 환조각의 체면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제 나라, 제 땅인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주권행사를 하는데 남조선당국이 코를 들이밀고 횡설수설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의 비웃음만 자아내는 주제넘는 처사이다.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키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이 현대의 독점권이 취소되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온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독점권이 오늘날에 와서 취소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이 벗어날 후과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누구의 합의위반과 조치철회에 대해 운운할 환조각의 체면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제 나라, 제 땅인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주권행사를 하는데 남조선당국이 코를 들이밀고 횡설수설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의 비웃음만 자아내는 주제넘는 처사이다.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키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이 현대의 독점권이 취소되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온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독점권이 오늘날에 와서 취소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이 벗어날 후과이다.

기할수 있게 되어있지만 오늘 북남사이에는 남조선당국의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상사중재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그 어떤 기구도 존재하지 않고있다.

우리의 이번 조치는 공화국법에 완전히 부합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 제28조에는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입은 경우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에 리행하지 못한 경우 합의를 취소하게 되어있다.

또한 공화국 민법 제96조에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그것

표류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남조선 괴뢰패당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 단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진상공개장

최근 남조선괴뢰패당은 기상악화로 조선서해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배와 주민들을 강제랍치하여 무려 50여일동안이나 부당하게 억류하고 악랄한 《귀순》공작에 매달리었으며 일부는 끝내 송환하지 않는 반인륜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공민들의 인권을 대한 용납할수 없는 엄중한 침해이며 또 하나의 극악한 중대범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남조선괴뢰패당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가장 횡포무도한 해적행위로, 특대형반인륜적범죄로 준엄히 규탄단죄하면서 그 진상을 내외에 공개한다.

우리측은 2월 14일 다시금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어 열흘이 되어오도록 우리 주민들과 배를 돌려보내지 않고있는데 대해 유감 표시하고 억류된 대부분이 녀성로서 어린 자식들을 비롯한 가족, 친척들이 안타깝게 기다리고있는것만큼 그들의 송환을 더 이상 지체시키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나중에는 어중이떠중이 일간쓰레기들까지 동원시키는 놀음을 벌리고 미제침략군의 심리요원들을 《귀순》공작에 끌어들이는 광대극도 연출하였다. 괴뢰장관들은 50여일에 이르는 기간 강제억류한 우리 주민들을 해방도 안드는 감방같은 곳에 잡아놓고 매일 같이 개별적으로 또는 가족단위로 불러내어 취조와 심문, 《귀순》공작놀음을 벌렸으며 어쩌다 밖에 나올 때에 눈을 싸매는 등 남조선의 중범죄자들보다 더 야수적으로 취급하였다.

이것이 저들이 날조한 《귀순》놀음의 정체가 드러나는것을 우려한데 있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괴뢰패당이 《귀순》공작에 얼마나 퍼논이 되어 미쳐날뛰었는가 하는것은 괴뢰정보원장이라는자가 3월 4일 우리 주민들을 《추가로 의사를 밝혔다.》고 고백한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후 4명 문제는 후에 따로 토의하자고 제의해온 점을 고려하여 우선 27명을 서해해상으로 돌려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괴뢰패당은 송환경로를 관문점으로 할것을 계속 고집하였다. 우리측은 지난 시기 우리 수역을 침범한 남조선배들과 인원들을 다 자기 배를 타고 들어왔던 해상으로 돌려보낸 사실과 최근에도 우리 해역을 불법침입한 《추가로 의사를 밝혔다.》고 고백한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참으로 괴뢰패당이 감행한 강제랍치와 억류, 《귀순》책동은 근대문명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반인륜적악만행위이다. 지금 억류된 사람들의 가족들중에는 처자들을 애가게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고 실신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 인민들은 괴뢰패당의 천인공노할 악만행위에 처사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강제랍치

지난 2월 5일 오전 8시경 우리 주민 31명은 조개잡이를 위해 5t급(27P) 고기배를 타고 황해남도 강령군 동포리 포구를 출발하였다.

거나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하였다. 괴뢰군놈들은 죄인을 다루듯 주민전원을 갑판에 끌어내어 무릎을 꿇게 하고는 곧 우리 배를 끌고 남쪽으로 뺄소니쳐 대기하고있던 괴뢰군함선들에 강제로 옮겨내어 버렸다.

우리 주민들과 배가 기상관계로 표류하였으며 31명전원이 돌아갈것을 희망하며 대해서는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장관자들에 인정한것이며 남조선인원들이 그에 대해 사실 그대로 보도하였다.

괴뢰패당은 저들의 집요한 협박과 회유기만책동이 뜻을 이룰수 없게 되자 몇명이라도 떨구어 버리고 발악하면서 강제로 귀순을 날조하는데 이르렀다.

괴뢰패당은 저들의 집요한 협박과 회유기만책동이 뜻을 이룰수 없게 되자 몇명이라도 떨구어 버리고 발악하면서 강제로 귀순을 날조하는데 이르렀다.

괴뢰패당은 저들의 집요한 협박과 회유기만책동이 뜻을 이룰수 없게 되자 몇명이라도 떨구어 버리고 발악하면서 강제로 귀순을 날조하는데 이르렀다.

그러면 괴뢰패당이 이번 도발적만행을 통하여 노린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동족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기 위한것이다. 지금까지 괴뢰보수패당은 합선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의 《보복》을 떠돌아다녔다.

1시간정도 지나 짙은 안개가 물로부터 바다쪽으로 밀려들면서 우리 배는 한치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뜻밖의 정황에 처하였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그러나 괴뢰패당은 선박수리요, 날씨요 뭐요 하며 또 10여일이나 끌다가 지난 3월 27일에야 우리 주민 27명을 서해해상으로 송환하였다. 돌아온 우리 주민들과 배의 형편은 참으로 한심하였다. 우리 주민들은 억류기간 동안 심한 다달질과 심리적압박감의 후유증으로 가족들을 만나서도 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극악한 반인륜적, 반인륜적인 특대형범죄이다.

배는 부득불 9시 30분경 우리 수역인 강령군 부도앞바다의 닻섬과 대수압도부근의 진조동대 주변에 닻을 내리었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뿐만아니라 배는 수리하였다고 하지만 강제랍치하면서 마구 부시고 파괴해놓은데다가 그사이 저들 항구에 처박아놓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 선장실 밑으로 물이 새어들어오고 기관까지 물에 잠기게 한 죄행을 가리워보려고 배를 마루와 선창, 갑판, 랜간, 선원실바닥을 대충 땀땀한데 불과하고 마사진 조라실유리창들은 통탄자로 볼품없이 막아놓아 열과 뒤쪽은 내다볼수 없게 하였다.

오전 11시경부터 떠다니는 큰 얼음장들이 배에 부딪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어 배에 뚫힌 선원들과 주민들은 다시 닻을 올리고 불리한 정황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괴뢰패당의 만행은 우리 공화국의 높은 권위를 훼손시키고 우리 내부민심을 동요시켜보려는 흉악한 속심으로부터 출발된것이기도 하다.

바로 이때 남조선괴뢰해군 고속단정 3척이 갑자기 나타나고 동물을 울리며 배를 세우라고 하였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우리가 배에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괴뢰군놈들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그대로 안되지 못하여 달려들어 팔팔을 결박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저들의 함선에 옮겨놓고 인원으로 내뺐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흉심은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는 27명만 잘 《사상정환》시키면 대북실리전 배라 270만장을 부린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떠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흉심은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는 27명만 잘 《사상정환》시키면 대북실리전 배라 270만장을 부린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떠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흉심은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는 27명만 잘 《사상정환》시키면 대북실리전 배라 270만장을 부린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떠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흉심은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는 27명만 잘 《사상정환》시키면 대북실리전 배라 270만장을 부린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떠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흉심은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는 27명만 잘 《사상정환》시키면 대북실리전 배라 270만장을 부린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떠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비렬한 《귀순》공작

괴뢰패당에 의해 강제랍치된 우리 주민들은 처음부터 표류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줄것을 일치하게 요구하였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흉심은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는 27명만 잘 《사상정환》시키면 대북실리전 배라 270만장을 부린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떠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서해해상에서 강제랍치당하여 50여일동안 남조선에 억류되었던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북의 주민들이 21일 인민문화관에서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하였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흉심은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는 27명만 잘 《사상정환》시키면 대북실리전 배라 270만장을 부린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떠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기자회견에는 공화국의 출판보고서와 총련의 기자들 그리고 중국, 로씨야, 미국의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흉심은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는 27명만 잘 《사상정환》시키면 대북실리전 배라 270만장을 부린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떠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기자회견에서는 해주산업건설사업소 노동자 옥성혁, 해주시 인공합동농장 농장원 리은구, 해주시 석천수산협동조합 노동자 박민식, 해주시 부용중학교 졸업생 변경일, 해주시 석미동 최충영, 현승복, 리향화, 리명옥, 라혜영, 해주화학공장 정문태가 발언하였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흉심은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는 27명만 잘 《사상정환》시키면 대북실리전 배라 270만장을 부린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떠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옥성혁은 지난 2월 5일 조개잡이를 위해 황해남도 강령군 동포리에서 오전 8시경에 출항하여 라침관을 리용하면서 어장을 찾아가던중 11시 30분경에 남조선해군의 고속단정 3척이 불췌 나타나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흉심은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는 27명만 잘 《사상정환》시키면 대북실리전 배라 270만장을 부린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떠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우리는 적들을 피하기 위하여 전속으로 배를 돌아갔다. 그러자 적들은 고속단정으로 우리 배의 앞을 막고 뒤에서는 갈기리로 배를 걸어당기였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흉심은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는 27명만 잘 《사상정환》시키면 대북실리전 배라 270만장을 부린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떠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그는 남조선괴뢰패당의 불법무도한 행위에 의하여 백주에 강제랍치되고 50여일동안이나 갖은 박해를 받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흉심은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는 27명만 잘 《사상정환》시키면 대북실리전 배라 270만장을 부린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떠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배를 강제랍치하고도 마치 표류되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흉심은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는 27명만 잘 《사상정환》시키면 대북실리전 배라 270만장을 부린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떠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우리가 배에 그대 응하지 않자 괴뢰해군 단정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나머지 2척은 배의 양옆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흉심은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는 27명만 잘 《사상정환》시키면 대북실리전 배라 270만장을 부린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떠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4월의 하늘가에 울려 퍼진 위인칭송의 노래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만민의 지향과 념원을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펼쳐보이며 지난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는 제 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축전에는 친출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대양과 대륙을 넘어온 명망 높은 문화관계인사들과 국제, 국내 콩쿨 수상자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예술단체들 그리고 제일조선인예술단, 재중조선인예술단,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에술단, 재미동포예술단 예술인들이 참가하여 친출위인들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을 율동한 예술적 화폭에 담아 보여주었다. 피부색과 언어,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누구나 한 목소리로 부른 태양칭송의 노래. 진정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한 두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주체조국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 퍼진 위인칭송의 노래,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우리 겨레와 진보적 인류의 흠모의 정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수령님 밤이 짝 깊었습니다》

*** 재중조선인예술단 ***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고
이 밤도 사랑의 길 떠나시는 수령님
찬이슬 내리는데 또 어찌 가시옵니까
수령님 수령님 밤이 짝 깊었습니다
...

인류의 영원한 태양을 우리려 흠모하는 전세계인류의 심장우에 높이 떠받들린 위인찬가의 예술축전에 어떤 노래를 안고갈것인가. 마음을 합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생각은 하나로 모아졌다.

이 가슴에 파도쳐올수록 노래 《수령님 밤이 짝 깊었습니다》의 구절구절이 모두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이렇게 되어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모시고 따를 자기의 절절한 한 마음을 담아 이 노래를 안고 축전장에 달려왔던 것이다.

가수들이 가사를 짓고 선율을 고르고 골라 지은 노래 《장군님 높이 모신 이 영광 전해다오》에도 뜨겁게 어려웠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재중조선인예술인들이 절절하게 부르는 노래 《수령님 밤이 짝 깊었습니다》.

만경대의 수수한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어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주석.



여성2중창 《수령님 밤이 짝 깊었습니다》

들으면 들수록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흠모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노래가 이번 축전무대에서 울리게 된다는 이런 사연이 깃들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되게 될 이번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앞두고 재중조선인예술인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고 인민을 위한 끝없는 사랑의 길을 이어가시는 나날에 주석께서 바쳐오신 헌신의 로고는 그 열마였던가. 자신의 제일 큰 기쁨은 인민의 기쁨속에 있다고 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주석에 대한 그리움

이번 축전에 참가한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에술단의 예술인들은 노래 《수령님 몸가까이 모시고 싶어》, 무용 《따르는 마음》 등을 밝고 진실한 사상감정과 투쟁있는 춤동작들로 훌륭하게 형상하여 관람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위인상에 매혹되어

◆◆◆◆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에술단 ◆◆◆◆

제나 조국을 안고 사는 우리 단날 탁월한 령도자를 모을 찾아 만리이역방에 뿐 아니라, 시지 못란타에 왜적에게 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의 존 국권을 강탈당하고 살길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 단날 탁월한 령도자를 모을 찾아 만리이역방에 뿐 아니라, 시지 못란타에 왜적에게 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의 존 국권을 강탈당하고 살길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용 《따르는 마음》



로씨야 모스크바고전발레단의 발레무용극 《백조의 호수》중에서 《로씨야춤》



↑ 쿠바기타3명중단의 노래 《언제나 제게바라와 함께》
↓ 중국교예단의 《사발발기》
→ 도이쉴란드 《크로이젠 콘서트》 협회 독주가일행의 첼로와 피아노2중주 라흐마니노프작곡 《위칼리제》



경호가수들은 지난 시기 중국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축원의 노래를 불러드린 더없는 행운을 지닌데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날의 감격을 안고 이렇게 노래불렀다.

어버이장군님 이 손을 잡으실 때
꿈같은 행복에 가슴 설렜네
한마디 감사의 인사도 올리지 못하고
눈물만 소리없이 흘렸습니
다
...
아 장군님 높이 모신 이 영광 전해다오
저 멀리 사랑하는 내 조국 하늘가에

이 밖에도 노래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들으시라 그날의 감격들》, 《태극과 흠모》를 비롯하여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민족의 크나큰 영광을 안고 이들이 부르는 태양찬가는 4월의 봄명절을 맞는 내 조국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아니었던가.

은 세상이 우러르는 선군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절감할수록 우리 조국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며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애록과 흠모의 감정은 더욱 강렬해졌다.

절세의 위인상에 매혹될수록 이들의 마음은 흥분과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인류가 우러르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종말마다에 어려웠는 이들의 공연은 조국인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며 위인칭송의 축전무대를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군무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나의 길, 총련의 길

— 재일조선인예술단 —

인류의 영원한 태양을 우리려 흠모하는 전세계인류의 심장우에 높이 떠받들린 위인찬가의 예술축전에 어떤 노래를 안고갈것인가. 마음을 합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생각은 하나로 모아졌다.

작으로 자연스럽게 관중들을 극중세계로 이끌어갔다. 밝고 봉건적정신을 타파하고 새롭고 진보적인것을 지향하는 작품의 내용도 좋지만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형상방도를 새롭게 탐구한 무용이야기는 시작부터 관중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이역의 광풍이 아무리 사납게 몰아치고 형언할수 없는 재난과 불행이 겹쳐져도 장군님만을 따르는 해외동포들의 신념은 절대로 허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는 이들의 공연은 인민배우 리영수의 독창 《나의 길》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우주를 가르며 날아오르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와 호호한 CNC기계바다, 아득히 뻗어간 대계도간석지제방 등이 무대자막에 란이 펼쳐지는 속에 CNC노래에 맞추어 박력있는 춤동작을 펼쳐가는 무용수들의 모습은 그대로 최첨단을 돌파하며 끊임없이 비약하는 조국에 발걸음을 맞추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재일동포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작품형상에서만이 아니라 재일조선인운동을 모든 면에서 새롭게 혁신하려는 재일동포들의 높은 지향과 애국열의는 무용 《세계를 향하여》에서 더 잘 찾아볼수 있었다.

우주를 가르며 날아오르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와 호호한 CNC기계바다, 아득히 뻗어간 대계도간석지제방 등이 무대자막에 란이 펼쳐지는 속에 CNC노래에 맞추어 박력있는 춤동작을 펼쳐가는 무용수들의 모습은 그대로 최첨단을 돌파하며 끊임없이 비약하는 조국에 발걸음을 맞추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재일동포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겨레의 통일이지 선물에 답아

재미조선인예술단

축전기간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은 재미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로 초만원이 이루어졌다.

봄이 와서 이 강산에 꽃이 피는가 하늘맑아 우리 기쁨 넘쳐나가는 수령님품속에서 이 행복, 이 기쁨 넘쳐흐르네라고 품만한 감성과 깊은 정서속에 부르는 리지는 동포의 독창 《수령님사랑속에 우리 행복 꽃피네》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어버이사랑속에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끝없는 행복감으로 젖어들게 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꽃피워가시는 인민의 락원, 세상에 자랑높은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목청껏 노래한 박진국동도의 독창도 관람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민족, 백두산에서 줄기가 뻗어내린 하나의 강도가 돌로 갈라져 겪어야 하는 겨레의 고통이란 아픔과 견결한 통일의를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였다.



남성독창 《사랑하는 나의 조국》

이민족, 백두산에서 줄기가 뻗어내린 하나의 강도가 돌로 갈라져 겪어야 하는 겨레의 고통이란 아픔과 견결한 통일의를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통일아리랑의 노래 높이 부를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줄 겨레의 자주통일지를 다양한 악기들의 조화롭고 풍부한 울림으로 잘 보여

이들의 공연은 조국인민들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아름다운 평양을 안고 감당

넘쳐있는 내 마음도 맑게 정화되는것만 같았다. 평양의 밤은 밤대로 환하고 조명의 세계가 황홀하였다.

이게 과연 서방세계가 비방하는 평양의 모습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나는 공화국의 거리는 어둡고 경제는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서방의 선전만 들어왔다. 하지만 그 모든것이 새빨

간 거짓말이라는것을 직접 보고 깨달았다. 공화국의 경제는 주체의 계도를 따라 승승장구하고있고 평양은 세계 어느 나라 도시에 도 비할바 없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도시였다.

내가 평양시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이 시내 곳곳에 펼쳐진 꽃바다였다. 70평생에 나는 《꽃의 도시》로 이름난 도시들도 보아왔지만 평양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처음 보았다.



이곳에 와서 들은바에 의하면 고국인민들은 평양시를 특색이 우겨지고 온갖 꽃이 만발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열의밑에 거리의 특색을 특색있게 형성하고 수종이 좋은 가로수들과 꽃들을

심고 가꾸었다고 한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꽃을 심고 가꿀수 있다.

평양시를 아름답게 단장한 꽃들에서 나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신심과 락원에 넘쳐진 전진하는 고국인민들의 송고한 정신세계를 읽었다. 그들에 의해 반드시 건설되고야말 통일강성대국의 미래를 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평양을 가슴속에 안고 간다. 비록 이국땅에 살고있지만 통일강성대국을 하루빨리 건설하는데 힘이나마 보려고싶은것이 나의 마음이다.

마가이(로씨야 연해변강 빠른지산스크시에 살고있는 동포임)

